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임원모임	12월 20일(수), 19:30	강당
사목협의회	12월 21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12월 24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알림

- 오늘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12월 24일)는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성탄제

- 일시 : 12월 23일(토) 14:00
- 장소 : 소성전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11월 전입)

- 일시 : 12월 24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2교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0구역5반	김봉석	마리아	수원교구/비전동
14구역1반	최경자	엘리사벳	서울대교구/구의동
14구역3반	이진주	베로니카	대전교구/시설기관
18구역3반	이정화	루시아	원주교구/북평
18구역3반	권용찬	루치아노	서울대교구/대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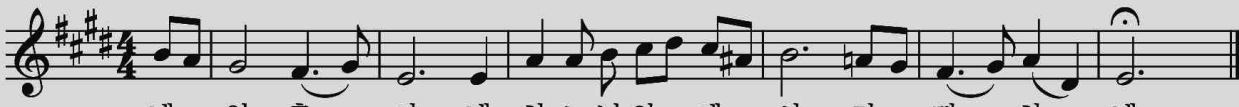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담당

12/24	12구역	12/31	13구역
-------	------	-------	------

- 12/24, 12/31에는 국수잔치가 없습니다.

화답송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 서기 때문에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17:00(중고등부 미사) *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 대림실천표 봉헌
25일(월)	성탄 대축일	10:30, 12:00,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주일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송년미사	저녁 8시
2024년 1/1(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9:00

우리들의 정성(12월 06일 ~ 13일)

• 교 무 금		8,990,000원	
• 주일헌금		5,057,600원	
	김희수50만원	지경자 5만원	정도선10만원
	박영철20만원	김정민30만원	김경자 5만원
	엄기자10만원	황금옥10만원	이봉연 5만원
• 감사헌금	김진수20만원	김해경 5만원	김창현10만원
	임우빈 5만원	김명선30만원	홍종열10만원
	최OO 30만원	익 명30만원	익 명30만원
	익 명10만원	9구역국수잔치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17	최경희	오성환	김영균	안상록	정연희
12/24	이영민	조홍환	오성환	장익근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17	옥윤필	오광운	최승일	최영만	옥윤필
12/24	최석준	이화봉	최창열	옥윤필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54. 국제 정치의 반응이 얼마나 미약한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환경에 관한 세계 정상 회담의 실패는 우리의 정치가 기술과 금융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 줍니다. 너무나 많은 특정 이익 단체들이 있고, 경제적 이익 단체들은 손쉽게 공동선을 장악하고 그들의 계획에 영향이 없도록 정보를 조작하기에 이릅니다. 「아파레시다 문헌」은 “생명의 원천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경제 집단들의 이익이 천연자원을 다루는 일에서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제와 기술의 동맹은 그 즉각적 이익과 무관한 모든 것을 결국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껏해야 피상적인 말, 어쩌다 하는 자선 행위, 마지못해 보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회 안에 있는 단체들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기울이는 참다운 노력은 낭만적인 환상에 근거한 골칫거리나 회피해야 할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55. 일부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더욱 효과적인 규제를 개발하며 부패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은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냉방기 사용의 증가와 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를 통하여 즉각적 이익을 얻는 시장은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합니다. 지구 밖에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때로는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56. 그러는 사이에 경제 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 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세계 체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인간 존엄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적 윤리적 타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방해 공작으로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절대 규칙이 되어 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